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BRIE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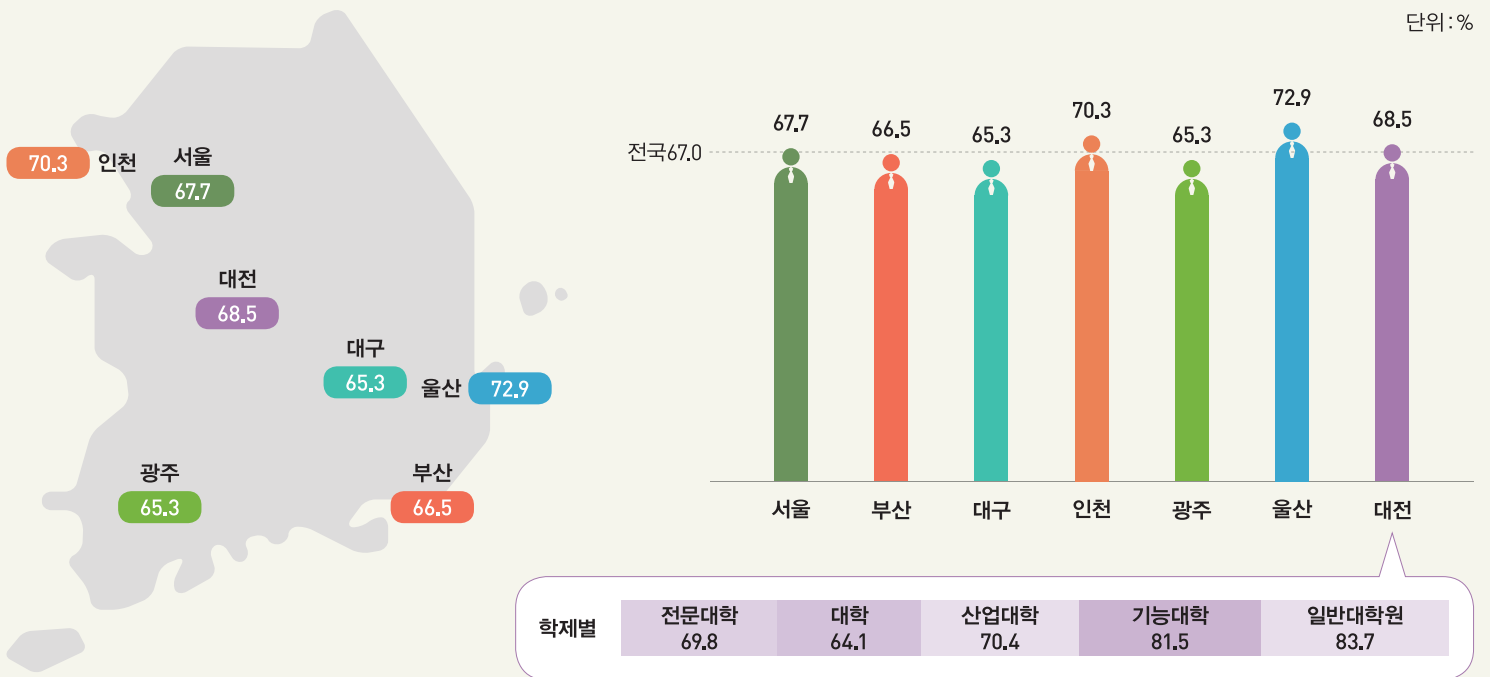
2016
No.59

발행처 | 대전세종연구원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발행인 | 유재일 편집인 | 주혜진 디자인 | 디자인스튜디오203 대전 발행일 | 2016. 11. 30.

대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률 전국평균보다 높은 68.5%

7개 특·광역시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률(2014년)



대전 일반대학원 졸업자 취업률 83.7%로 가장 높아

2014년 전국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전체 취업률은 67.0%로 나타났다. 7개 특·광역시 고등교육기관의 졸업자 취업률을 살펴보면, 울산이 72.9%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은 인천 70.3%, 대전 68.5%, 서울 67.7%, 부산 66.5% 순이었고,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취업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대구(65.3%)와 광주(65.3%)로 나타났다. 대전은 7개 특·광역시 중 세 번째로 취업률이 높았다. 대전의 고등교육기관을 학제별로 나눠 살펴본 결과, 일반대학원이 83.7%로 가장 높았다. 이어서 기능대학(81.5%), 산업대학(70.4%), 전문대학(69.8%)이 뒤를 이었으며, 대학은 64.1%로 취업률이 가장 낮았다.

*고등교육기관 졸업자를 건강보험 및 국세DB연계해 취업통계조사를 실시함

*조사기준일: 2014년 12월 31일

*취업률= 취업자/취업대상자*100

*취업자: 건강보험직장가입자+교내취업자+해외취업자+농림어업종사자+개인창작 활동종사자+1인칭(사)업자+프리랜서

*취업대상자: 졸업자-(진학자+입대자+취업불가능자+제외인정자+외국인유학생)

*졸업자: 2013년 8월 졸업자 및 2014년 2월 졸업자

*취업불가능자: 수형자, 사망자, 해외이민자, 6개월 이상 장기입원자

*제외인정자: 여자군인 중 임관 전 훈련생,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교육대상자, 종교 지도자 양성 관련학과 졸업자, 경찰공무원 및 소방공무원 채용 후보자 중 훈련생

*자료출처: 교육부, 『취업통계연보』, 2014

교육부, 『2014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 통계 조사결과 보도자료』

대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률 4년간 0.1%p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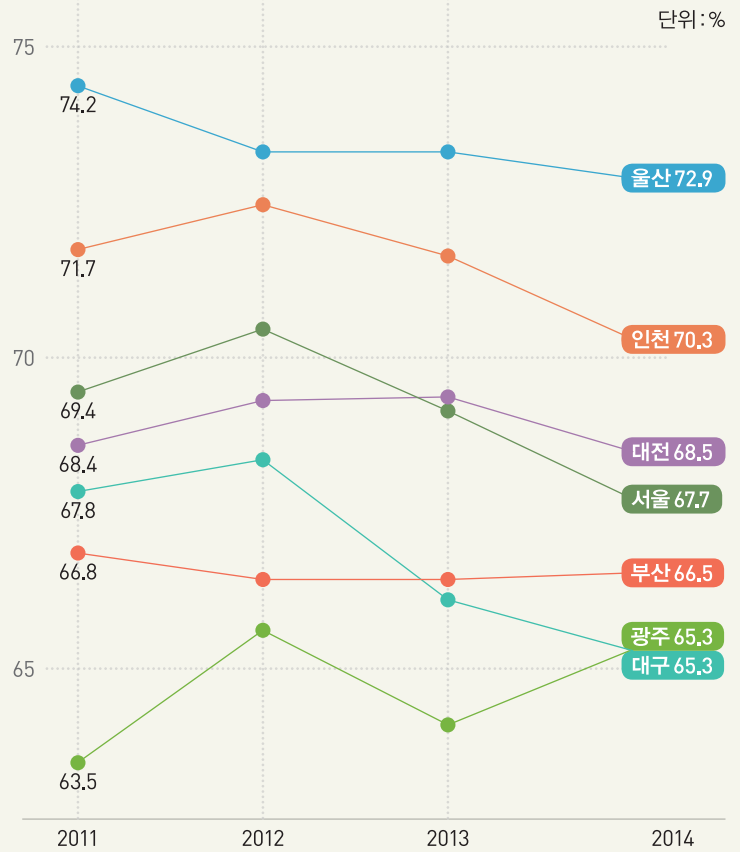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의 7개 특·광역시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률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7개 특·광역시 중 광주와 대전만 2011년(광주 63.5%, 대전 68.4%) 대비 상승했다. 광주는 4년 전에 비해 1.8%p 상승했으며, 이어서 대전은 0.1%p 상승했다. 대구는 2.5%p 하락해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으며, 다음으로 서울(-1.7%p), 인천(-1.4%p), 울산(-1.3%p) 순이었다. 부산은 2011년(66.8%) 대비 -0.3%p 하락으로 가장 낮은 하락폭을 보였다.

*취업률= 취업자/취업대상자x100

*자료출처: 교육부, 『취업통계연보』, 각년도

교육부, 『2014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 통계 조사결과 보도자료』

7개 특·광역시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률 추이(2010년~2014년)



대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여성 취업률 6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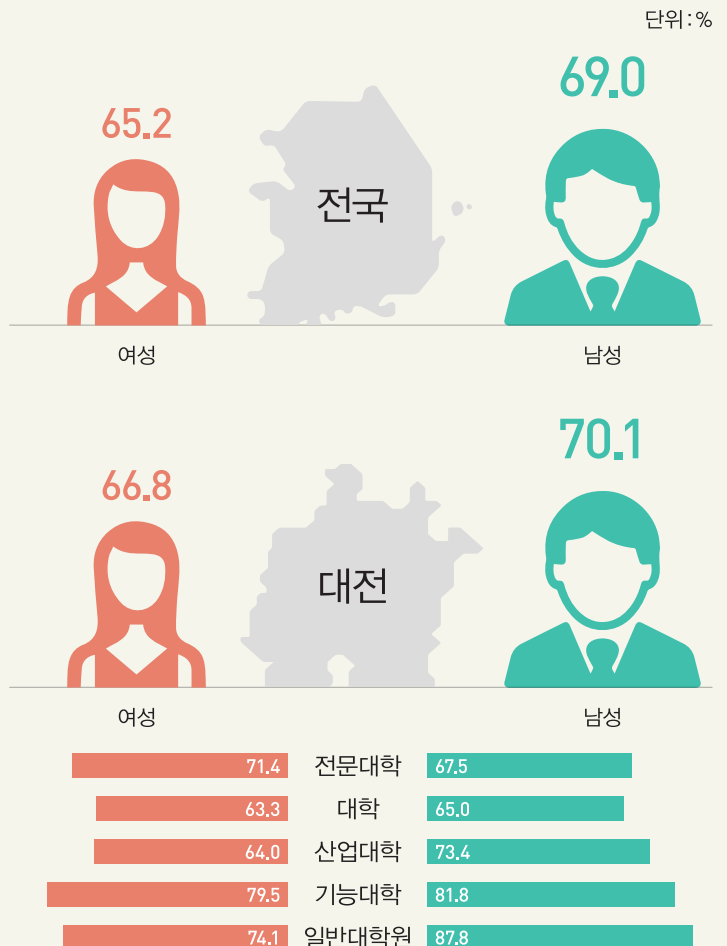
2014년 대전의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률을 성별로 살펴본 결과, 여성은 66.8%, 남성은 70.1%로 남성 취업률이 3.3%p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여성과 남성 모두 전국 취업률(여성 65.2%, 남성 69.0%)보다 높은 수치였다. 대전의 고등교육기관을 학제별로 나눠 성별 취업률을 살펴보면, 여성 취업률은 기능대학(79.5%)이 가장 높았으며, 남성 취업률은 일반대학원(87.8%)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반대학원에서 여성 취업률이 남성 취업률보다 13.7%p 낮게 나타나 격차가 가장 심했으며, 전문대학에서 유일하게 여성 취업률(71.4%)이 남성 취업률(67.5%)보다 높게 나타났다.

*취업률= 취업자/취업대상자*100

*자료출처: 교육부, 『취업통계연보』, 각년도

교육부, 『2014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 통계 조사결과 보도자료』

전국 및 대전시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성별·학제별 취업률(2014년)



대전 여성 1인 창(사)업자·프리랜서 비율 남성보다 1.8%p 높아

전국 및 대전시 고등교육기관 졸업취업자 대비 1인 창(사)업자·프리랜서 성별 비율(2014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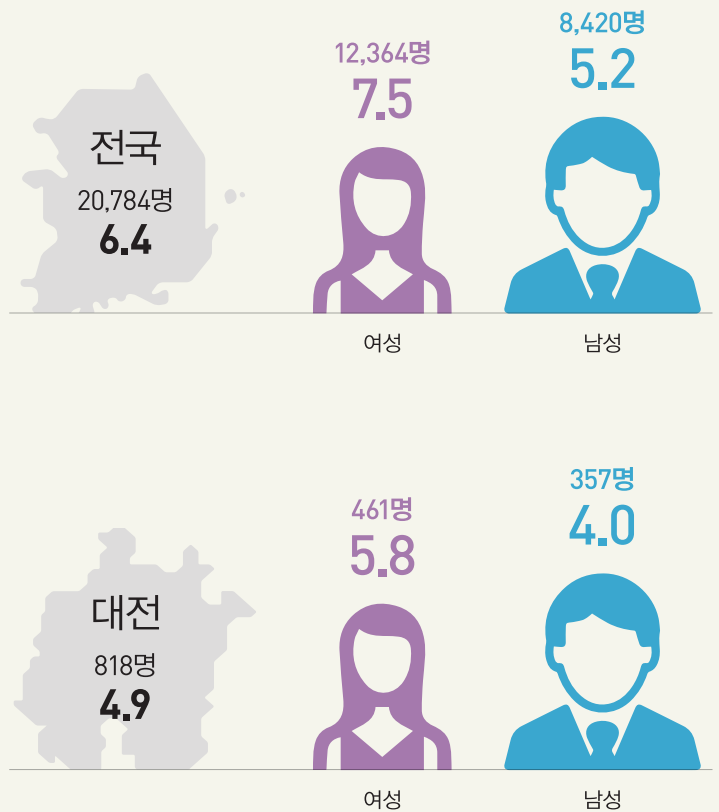
대전에서 고등교육기관을 졸업한 후 취업한 사람 중 1인 창(사)업자 및 프리랜서는 818명으로 전체 취업자 대비 4.9%이며, 전국 1인 창(사)업자 및 프리랜서(20,784명, 전체 취업자 대비 6.4%)보다 1.5%p 낮았다. 성별로 살펴보면, 대전 여성의 전체 취업자 중 1인 창(사)업자와 프리랜서 비율은 5.8%로 남성(4.0%)보다 1.8%p 높았고, 전국 또한 고등교육기관을 졸업한 여성 전체 취업자 중 1인 창(사)업자, 프리랜서 비율은 7.5%로 남성(5.2%)보다 2.3%p 높았다.

*취업자: 건강보험직장가입자+교내취업자+해외취업자+농림어업종사자+개인창작활동종사자+1인창(사)업자+프리랜서

*1인 창(사)업자+프리랜서 비율= 1인 창(사)업자+프리랜서/취업자*100

*자료출처: 교육부, 『취업통계연보』, 각년도

교육부, 『2014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 통계 조사결과 보도자료』



맛있는 사고에 주름을 잡다 제5회 젠더 콜로키움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는 최근 젠더 이슈와 담론을 파악하기 위해 젠더 콜로키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제5회 콜로키움이 지난 11월 18일 개최됐다. 이번에 발표된 주제는 충남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김은하 씨의 '미성년자녀를 가진 맞벌이 여성의 일가족 갈등 예측 요인: 생애과정 관점을 중심으로'였다. 김은하 씨는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맞벌이 여성의 일가족 갈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시간의 경과에 따라 맞벌이 여성의 일가족 갈등의 변화와 예측 요인이 무엇인지를 종단적으로 파악하는데 주목했다. 참석자들은 생애주기별 일가족 갈등의 원인을 살펴봄으로써 생애주기별 정책적 관점의 개입이 필요함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고 말했다.

일과 가정에 지친 여성들을 위한 치유의 시간 '여자, 날아오르다' 토크콘서트



대전광역시가 주최하고 대전세종연구원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가 주관한 '여자, 날아오르다' 토크콘서트가 지난 11월 21일 대전서구문화원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크콘서트는 권선택 대전시장과 박희정 아나운서의 시정 관련 현장 토크, 국악인디밴드 정간의 공연을 시작으로 여성으로 그리고 사회인으로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고 있는 김현주 대표(서비스브릿지컨설팅), 양선화 변호사(양선화변호사 사무실)를 초대에 대한민국에서 여성으로 행복하게 살기 위해 노력한 본인들의 일상과 그 일상 속에서 경험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청중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20대 여성들에게는 선배의 경험 지침서가, 출산과 육아로 지친 경력단절 여성들에게는 새로운 삶을 꿈꿀 수 있는 자리가 됐다.